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형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맥락적 도덕지향성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현 주

중학생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맥락적 도덕지향성

이 옥 형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현 주

인 준 서

이현주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Gilligan의 맥락이론을 우리 문화권에서 중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적인 관계 및 상황에서의 도덕판단을 가상적 사태에서 측정한 ‘일반적 도덕성’과 실제적 사태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 및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측정한 ‘맥락적 도덕성’에서의 맥락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628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가상적 사태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판단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와 실제적 사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계를 고려하여 내리는 도덕판단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변량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배려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의지향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도덕성이 높아진다고 한 Kohlberg(1984)의 주장이 우리 문화권의 중학생들에게도 적용됨을 검증했다고 하겠다.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Kohlberg(1984)가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정의지향적 도덕성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일반적 도덕성은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및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일반적 도덕성은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및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상적 사태에서 측정된 일반적 도덕성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므로 관계맥락과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보편타당한 도덕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Gilligan(1982)의 견해를 우리 문화권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으나 배려지향성은 높아졌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발달한다고 주장한 Gilligan(1982)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고 하겠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지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성차가 없는 것은 일반적 도덕성의 결과와도 동일한데, 정의지향성의 사용은 가상적 사태와 실제적 사태에서, 또한 일반적 대상과 자신과 밀접한 대상 모두에서 남녀 차이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려지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지만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지향성은 부모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와 형제관계였고, 교사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의지향적 판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므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도덕판단인 맥락적 도덕성에서도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의지향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배려지향성은 우리나라만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상황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차이가 없었으며, 배려지향성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사적인 장소인 가정상황과 공적인 장소인 학교상황에서 발생한 딜레마에 대해서 크게 구별하지 않고 도덕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일반적인 관계 및 상황에서 측정되는 일반적 도덕성에서의 도덕판단과는 달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 및 상황에서 측정되는 맥락적 도덕성에서는 배려지향적 사고를 보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도덕판단에 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딜레마의 경우, 가상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나 딜레마 발생에 대한 상황적 정보가 부족하며, 권리들의 갈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도덕판단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도덕성 발달의 차이 및 맥락적 도덕성에 있어서 관계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성의 차이는 도덕성 문제를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친밀한 관계 순위는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의 문화적 특수성과 이들이 연령에 따라 성장해 가는 사회적 및 도덕적

발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4.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8
1. 도덕성 발달이론과 도덕지향성	8
1) 도덕성 발달이론	8
2) 도덕지향성	10
2. 도덕지향성에서 연령 및 성차	14
1) 연령 및 성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14
2) 연령 및 성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17
3. 맥락과 도덕지향성	23
1) 관계맥락과 도덕지향성	24
2) 상황맥락과 도덕지향성	33
III.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	38
2. 연구절차	38
3. 연구도구	39
1)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39
2)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40

IV. 연구결과 및 해석	42
1.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 차이 분석	42
2.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 차이 분석	54
V. 결론 및 제언	64
1. 요약 및 논의	64
2. 제언	70
참고문헌	74
ABSTRACT	84
부 록 : 1.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88
2.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95

표 목 차

<표 1> 관계맥락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요약	32
<표 2> 상황맥락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요약	37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38
<표 4> 연구절차	39
<표 5>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와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의 신뢰도	41
<표 6>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42
<표 7>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43
<표 8>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44
<표 9>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45
<표 10>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46
<표 11>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47
<표 12>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49
<표 13>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49
<표 14>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50
<표 15>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51
<표 16>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52
<표 17>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52
<표 18>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53
<표 19>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53
<표 20>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54
<표 21>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55
<표 22>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56
<표 23>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56

<표 24>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57
<표 25>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58
<표 26>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59
<표 27>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59
<표 28>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60
<표 29>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61
<표 30>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62
<표 31>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62
<표 32>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 비교	63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 및 성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45
[그림 2] 연령 및 성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4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도덕성(morality)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특성 규범(norm)이며, 인간행동 준칙이다. 도덕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요구되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준칙이 무엇인지는 시대와 문화, 또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각 이론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와 연구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도덕성 발달을 양심 즉, 초자아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는 반면,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영향과 관찰 가능한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고,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판단에 초점을 두어 인지발달의 한 양상으로 다루고 있다(Leman, 1996). 이 이론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도덕성 발달이론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이론을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이론들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은 인지발달이론이며, 특히 Kohlberg(1963, 1981)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은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에 근거하여 발달하며,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각 단계마다 도덕판단에 대한 특이한 관점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는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제안하면서, 이것은 모든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누구에게나 보

편적이고 불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Kohlberg의 이론을 적용한 도덕성 발달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은 4단계의 법과 질서 지향의 도덕성을 나타내며, 여성은 3단계인 조화로운 대인관계 지향의 도덕성을 나타내어 남성의 도덕성이 여성의 도덕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hlstedt, 1994).

그러나 Gilligan(1997)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성의 시각으로만 연구한 결과이며,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시각으로 도덕판단한다는 것을 간과하여, 여성의 도덕판단의 특징인 배려지향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적편견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남성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타인과의 친밀감과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또한 Kohlberg는 도덕판단 과정에서 맥락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Gilligan은 여성의 도덕판단은 맥락적이어서 특정한 인간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할 경우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 남성은 여러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서 공정성의 논리에 준하여 도덕문제를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도덕판단을 하는 반면, 여성은 도덕 문제를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등 맥락적 관계와 맥락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Meyers, 2001).

Gilligan(1982)은 Kohlberg의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적 도덕딜레마 질문지에 의한 도덕판단과 실제적 도덕딜레마 사태에서의 도덕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도덕딜레마 사태에 처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연구하여, 3수준 2과도기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단계를 제안하였다. Gilligan의 도덕성 발달이론

은 Kohlberg의 발달 이론과 도덕적 내용은 다르지만, 발달 계열이 유사하여 인지 발달이론의 틀 안에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설명하고 있다.

Gilligan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이론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연구 역사가 짧아 실증적 연구결과는 많지 않으며, 연구결과도 다소 다르다. 도덕 지향성의 성 차이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정의와 배려의 두 가지 지향성을 사용하지만 성 차이를 보여 남성은 정의지향성을 여성은 배려지향성을 더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Gilligan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하겠다(Lyons, 1983; Gilligan & Attanucci, 1988; Mahlstedt, 1994; 이나현, 1997). 그러나 남녀에 관계없이 두 가지 도덕지향성을 거의 동등하게 사용하므로 도덕지향성이 반드시 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Ford & Lowery, 1986; Walker, 1994).

또한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Skoe & Diessner, 1994; Meyers, 2001),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다. 더욱이 성인에 대한 소수의 연구결과도 일관성이 없어 성인기 발달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말하기 어렵다(Lyons, 1983; Pratt, 1984; 정옥분, 광경화, 2002).

배려지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남녀 및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도덕지향성에서의 맥락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Lantsberger, 1993; Crandall, 1999; Shira et al, 2002; Juujarvi, 2003). Lantsberger(1993)는 성별에 상관없이 친밀한 인간관계일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나타냈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정의지향성을 보여 관계맥락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딜레마의 발생 장소가 집인지 이웃인지 혹은 직장인지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더 정의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상황맥락에 따른 도덕지향성의 차

이를 보고하였다. Crandall 등(1999)도 여성이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을 다르게 보인 이유는 관계를 맺은 시간이 길었던 상황에서 더 배려지향적이라고 보아, 관계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도덕성에서의 맥락효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 연구가 적은 편이어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맥락효과를 고려한 도덕성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으며(박병준, 1999), 실증적인 연구도 주로 성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고(이나현, 1997; 정옥분, 광경화, 200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강승호, 고인자,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관계 및 상황에서 측정된 일반적 도덕성과 자신과 밀접한 관계 및 상황에서 측정된 맥락적 도덕성에서 도덕지향성이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은 연령 및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은 맥락(관계맥락, 상황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일반적 도덕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도덕성은 Kohlberg(1963)가 주장하는 도덕성을 말한다. Kohlberg(1963)의 이론에서 도덕판단은 언제, 어디서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도덕성은 도덕판단 준거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도덕성의 측정은 연구대상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먼 나라에 사는 연구대상자와 같은 연령 및 동성의 학생이 경험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2) 맥락적 도덕성

본 연구에서 맥락적 도덕성은 Gilligan(1982)이 주장하는 도덕성을 말한다. Gilligan(1982)의 이론에서 도덕판단은 책임과 배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맥락적 도덕성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책임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여 보살핌을 중요시하는 도덕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맥락적 도덕성의 측정은 연구대상자와 같은 연령 및 동성의 우리나라 중학생이 자신과 친밀한 대상에게 어떤 도덕판단을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도덕딜레마를 통해 알아보았다.

3) 관계맥락

Gilligan(1982)은 가깝거나 먼 관계 혹은 갈등이 심한 관계이거나 갈등이 적은 관계 등의 관계적 맥락요소들이 도덕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관계맥락이란 도덕문제와 관련된 사람과의 인간관계적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맥락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실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모, 형제,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상황맥락

Gilligan(1982)은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문제가 발생한 사회적 배경과 분리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상황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맥락이란 도덕문제가 발생한 환경적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맥락으로 중학생들의 실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으로 사적 공간인 가정상황과 공적 공간인 학교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생의 맥락에 따른 도덕지향성을 연구하여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이 관계맥락과 상황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소재 중학교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의 효과로 연구대상자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정과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다양한 변인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도덕지향성에 대한 맥락의 효과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도덕지향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양적 연구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덕성 발달이론과 도덕지향성

1) 도덕성 발달이론

라틴어 mores가 어원인 도덕성은 예절이나 관습, 윤리적·사회적 규범 등을 뜻하며,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옥형, 2002).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먼저 정신분석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도덕적 정서와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성을 인간의 외부에서 부여된 사회적 금지와 허용,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내면화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으로 보고 있다. Freud(1966)는 도덕성을 초자아의 발달과 더불어 성격의 총체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성 발달은 성격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덕성의 성숙은 인간의 심리적·성적 욕구의 발달, 특히 쾌락추구의 욕구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건전한 초자아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비합리적인 충동의 원천인 원초아를 순화시키고 규제해야하므로 권위를 가진 어른의 외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죄책감과 양심의 소극적 측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열망하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건전한 자아를 이룰 때 도덕성이 발달된다고 보았다(유병열, 2004).

정신분석이론은 사회적·환경적 조건의 변화보다는 무의식적 감정의 측면에서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들에게는 교육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성격, 행동, 그리고 동기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포괄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지, 도덕적 행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Bandura(1977)는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은 강화와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긍정적 강화는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자기 통제력을 학습할 수 있어 사회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길러주지만, 부정적 강화는 비도덕적 행동을 일시적으로만 억제하고 처벌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찰을 통한 모방은 도덕성에 기준을 갖게 되지만 단순히 모델을 관찰했다는 것만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인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의식적으로 수용할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노석준 외, 2006) 도덕성 형성에 책임이 있으며,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학습이론은 아동기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설명은 유용하지만 보다 복잡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도덕발달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의 중요성과 강화와 모방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정창우, 2008).

셋째,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능력이 도덕성이라고 보고, 도덕성 발달이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옥형, 2006).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이유와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iaget(1962)는 도덕성이란 사회적 규칙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책임감을 포함한 정의감(sense of justice)이라고 주장하고, Piaget(1962)는 도덕은 규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성은 인간의 정신이 이 규칙들을 어떻게 존중하게 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아동의 도덕발달 양상을 규칙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밝혀내고자 하였다. Piaget(1962)는 아동들의 도덕적 책임감, 공정성, 정의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도덕성은 강제적 또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로부터 협동적 또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함을 입증하였다(이옥형, 2002).

이 후, Kohlberg(1984)는 도덕판단력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달된다는 Piaget(1962)의 주장을 확장하여 도덕적 사고의 발달단계를 기술하였다.

2) 도덕지향성

Kohlberg(1963)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 84명에게 도덕적 딜레마 질문지를 이용하여 도덕성 발달단계를 3수준 6단계로 제안한 이후, 이론의 연속성과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 횡단적 연구, 비교문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 발달은 문화에 관계 없이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며, 도덕성 발달은 인지발달과 병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준 1> 전인습적 도덕성(preconventional morality)은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족이 선악을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단계 1: ‘벌과 복종 지향’과 단계 2: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을 포함한다. <수준 2> 인습적 도덕성

(conventional morality)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기준으로 사회지향적 도덕성으로 발전한다. 이 수준에는 단계 3: '조화로운 대인관계 지향'과 단계 4: '법과 질서 지향'이 있다. <수준 3> 후인습적 도덕성(post-conventional morality)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존가치에 대한 반성적 관점과 스스로 구성한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의존한다. 단계 5: '사회계약정신 지향'과 단계 6: '보편적 도덕원리 지향'이 여기에 속한다.

Kohlberg(1976)의 도덕적 발달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로 갈수록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6단계로 귀결되고, 도덕원리는 보편적인 양식이므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채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규칙으로 보았다. 도덕적 자율인은 6단계에 이른 사람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정성, 평등을 도덕원리로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

Kohlberg(1976)의 도덕성 발달단계 이론은 도덕 발달 과정을 명확하게 개념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오늘날 도덕성을 증명한 실증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론이다. 그러나 성 편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hlberg(1976) 이론의 성 차별 원인은 특정 단계의 도덕성 순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특징인 타인에 대한 책임 및 대인관계와 같은 특성들은 단계 3으로 분류되므로 인해 남성이 선호하는 법과 질서존중의 4단계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생각하는 선을 도덕 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특징지어온 것을 비판하였다(Gilligan, 1997). 둘째, 남성 연구대상자만을 표본으로 한 Kohlberg(1963)의 이론은 여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남성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하였다는 것이다(Mahlstedt, 1994). 셋째, Kohlberg(1976)의 질문지는 딜레마의 주인공들이 대다수 남성이어서 여성 연구대상자들은 남성 주인공들과 동일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단계의 도덕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Mahlstedt, 1994). 넷째, Kohlberg(1976)의 견해로는 맥락이 비교적 적은 딜레마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성 측정에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으나, 맥락이 적은 딜레마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심각한 편견의 원인을 가져온다고 보았다.(Lantsberger, 1993). 다섯째, Kohlberg(1963)의 도덕성 연구에서 가상적 상황에서 사용된 도덕발달 단계가 실제적 상황에서의 지향성과 일치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완전한 도덕성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남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도덕성이 요구되었다. Gilligan(1982)은 Kohlberg(1963)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주장하면서, 도덕성은 정의와 배려라는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도덕문제에서 서로 다른 도덕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Kohlberg(1963)는 도덕성을 도덕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인간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라 본 반면, Gilligan(1982)은 도덕성을 관계 속에서 책임과 배려의 문제로 생각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남성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공정과 평등이라는 추상적 판단을 요구하는 도덕성이다. 이것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아를 자율성과 분리로 규정한다. 반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여성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도덕성에 대한 관계와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애착과 배려에 기반을 둔 이해와 구체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Gilligan(1982)이 도덕성을 설명함에 있어 여성의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을 대비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남성의 경험과 발달에 기초한 이론이 남성에게는 적합하나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주로

여성에게서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발견되었지만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Gilligan(1982)은 가상적 딜레마를 이용하여 연구한 Kohlberg와 대조적으로 실제 도덕딜레마에 처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임신 중 낙태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 29명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딜레마에 대한 면담을 통해 3수준 2과도기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밝혀냈다. Gilligan(1982)이 제시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수준은 자기중심적 단계로 이 시기에 도덕적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중심적 배려이다. 제1.5수준(첫 번째 과도기)은 자기심에서 책임감으로 변화하는 단계로 자신의 욕구에 덧붙여 타인의 욕구를 의식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제2수준은 책임감과 자기희생 단계로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모성애적 도덕성을 가지게 되어 배려의 대상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자신은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간관계의 평형이 파괴된다. 제2.5수준(두 번째 과도기)은 선행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성으로 변화하는 단계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다시 고려하게 되어 자신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제3수준은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단계로 자기 자신도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 자신도 배려해야 한다는 배려의 원리를 도덕판단의 보편적인 원리로 채택한다.

Gilligan(1995)의 연구는 해결해야 할 도덕문제들을 제시한 후 면접대상자들이 도덕문제를 어떻게 규명하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 어떤 것들을 도덕적 갈등으로 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방식(narrative)이 중요하며, 이들의 언어와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연구대상자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도덕문제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증가와 함께 점점 더 복잡해지고, 통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수준 결정은 연구대상자들이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결정되며, 실제로 결정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 도덕지향성에서 연령과 성차

1) 연령 및 성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연구는 Kohlberg(1969)의 주관식 서술형 측정 방법인 도덕판단 인터뷰(Moral Judgment Interview: MJI)로 시작되었다. 그 후 Rest(1975)가 객관식 선다형 측정으로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 DIT)'를 제작하였고, DIT에서 도덕판단력을 측정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는 P(principle)지수로 후인습적 수준인 5, 6단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P점수는 0~95점까지 분포한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 연령과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령에 대한 연구를 보면, Baek(2002)은 서울과 런던에서 7, 10, 13,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Kohlberg의 도덕딜레마 3편을 사용하여 도덕판단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두 문화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서 도덕판단의 단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연령에 따른 발달의 경향이 동일하다는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Rest(1990)는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 DIT)를 1,000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중학생 20점대, 고등학생 30점대, 대학생 40점대, 대학원생은 50점대에 달하며 성인은 40점대를 나타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Arnold(1993)와 Jeffrey(1993)도 DIT로 검사한 결과 비즈니스 전공 대학생의 졸업반 학생이 신입생보다 도덕판단력이 높아 연령에 따라 도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ood과 Cartwright(1998)는 DIT로 대학교 신입생과 졸업생의 도덕판단력 검사를 하였으나 두 집단간의 도덕판단력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문용린·문미희(1993)가 DIT를 사용하여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실시된 한국청소년의 도덕판단 발달경향을 측정한 10여 편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도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 혹은 학년에 따른 발달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강성은(1995)과 강승호, 고인자(2003)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DIT를 가지고 도덕판단력을 검사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도덕성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정옥분, 광경화(2002)는 DIT를 이용하여 도덕판단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P점수가 42점 이상인 비율이 청소년(45.7%)과 30대 성인(50.0%)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과 50대 성인(6%), 30대 성인(50.0%)과 50대 성인(6%)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50대 성인의 도덕성이 고등학생이나 30대 성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olstine(1976)은 Kohlberg의 채점 방식이 성적 편견이 있다고 보아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5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단계에 속해 있는 피험자들에게 Kohlberg의 딜레마에 대하여 면접했을 때, 여성의 사고는 3단계로 채점된 반면, 남성들은 4단계로 채점된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단계가 비약(stage skipping)되었다고 주

장하였는데, 남성은 2단계에서 4단계로, 여성은 3단계에서 5단계로 비약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3단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과 상치되는 반면, 4단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상치되는데, Kohlberg는 백인 남성들만을 표집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성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어 여성의 도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bel(1993)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의 5~6단계를 합한 점수인 P 점수로 12~18세 학생들의 도덕판단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P지수는 성별과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Arnold(1993)는 12~18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조사하였으나 도덕성은 성별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하였다. Catherine(1999)도 중학생(6~10학년)의 도덕적 사고능력을 DIT로 측정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Rest(1990)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에게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성별에 차이가 미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aek(2002)은 서울과 런던에서 7, 10, 13,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Kohlberg의 도덕딜레마 3편을 사용하여 도덕판단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문화 모두에서 성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Abdolmohammadi(1997)는 대학생의 도덕판단력을 DIT로 검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강성은(1995)과 강승호, 고인자(2003)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DIT를 가지고 도덕판단력을 검사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은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판단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분, 광경화(2002)는 DIT를 이용하여 도덕판단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P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성인의 경우

에는 P점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높았으나 5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도덕판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문용린, 문미희, 1993; 강성은, 1995; 정옥분, 광경화, 2002; 강승호, 고인자, 2003; Rest, 1990; Arnold, 1993; Jeffrey, 1993; Good & Cartwright, 1998; Baek, 2002)가 우세하여 연령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나아가고 있다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문용린, 문미희, 1993; Rest, 1990; Abel, 1993; Arnold, 1993; Catherine, 1999; Baek, 2002)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강성은, 1995; 정옥분, 광경화, 2002; 강승호, 고인자, 2003; Abdolmohammadi, 1997)가 있어 성별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연령 및 성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연령 증가와 함께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일관성 있게 발달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이 증명되었다.

Lamm(1992)은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호저와 고슴도치’ 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유치원 아동은 우화 딜레마 해결에 배려지향성보다는 정의지향성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 하면서 더 많은 규칙과 추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공정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정의지향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두 가지 지향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다.

Brown 등(1988)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여학생들의 배려지향성 발달을 연구하였다. 1학년 여학생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관계적 딜레마

를 말할 때 어려워하지만 스스로 공정하게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이 3학년까지 지속되다가 4학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어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불일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위해 ‘착한 소녀’ 이미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남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과 자신이 원하는 행동 사이에서 매우 갈등하다가 7학년부터 9학년 사이에 도덕지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혼동된 지향성으로 변화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자아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10학년이 되면서 자신과 타인의 요구 사이에 갈등을 계속하지만 관계상실을 두려워하여 종종 침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Brown 등(1988)의 연구결과와 Gilligan의 연령에 따른 배려지향성 발달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Meyers(2001)는 10~13세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배려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배려 수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Meyers(2001)는 배려지향성이 청소년 초기에 점차적으로 발달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인지발달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지향의 사고로 이동하면서 청소년 초기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딜레마를 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Walker 등(1987)은 6~15세를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정의지향성에 관한 관심사들이 이들을 지배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려지향성 사용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Skoe와 Diessner(1994)는 16~30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알아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려지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옥분과 광경화(2002)는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30대 성인과 50대 성인을 비교

한 결과, 청소년기에는 제1.5수준이 가장 많았으나(53.3%), 성인기에는 30대 성인과 50대 성인은 모두 제2수준을 가장 많이 나타내어(50.0%), 30대와 50대 성인 청소년보다 도덕판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여학생, 10~13세 학생, 6~15세 학생, 16~30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알아본 결과,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동안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기에는 정의지향적 성향이 높으나, 초등학생이 되면서 관계유지를 중시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숙·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령 변화에 따른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Lyons(1983)는 36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도덕지향성에 연령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은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성은 정의지향적 사고(79%)를, 여성은 배려지향적 사고(75%)를 주로 하지만 여성에게서만 27세 이후부터는 이전에 비해 정의지향적 도덕성 경향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Lavell(2001)은 25~85세의 380명을 대상으로 젊은 성인기(23~34세), 중년의 과도기(35~45세), 중년기(46~59세), 노년기(60세 이상)로 나누어 도덕지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중년기 성인들은 남녀가 모두 가장 배려지향적이었으나, 60세 이상의 노년기 성인들은 남녀 모두가 다른 집단들보다 배려지향성이 가장 낮았고, 정의지향성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동안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기에는 정의지향적 성향이 높으나, 초등학생이 되면서 관계유지를 중시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숙·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보다 성인의 배려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러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의 일정한 경향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연구된 유아기에서 청년기 동안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는 더욱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는 도덕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도덕성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는데, 이미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어 실제적 사태뿐만 아니라 가상적 사태에서도 결과를 예상하고 현상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며 자신과 타인의 사고를 객관화시켜 비판할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Piaget, 1952). Kohlberg(1984)이론의 인습적 도덕성의 단계로 접어들어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대한 도덕딜레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숙되는 시기이므로 도덕성 발달연구에 있어서 무리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시기이다.

더욱이 Gilligan(1993)은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청소년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는 도덕성의 개념을 개별화, 분리, 자율성에만 초점을 두어, 발달을 분리와 동일시하고 성숙을 자율성과 동일시켰으며, 특히 청소년기를 제2의 개별화 시기로 규정하여 상호의존성, 애착, 관계 등에 대하여 무관심해 왔으므로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차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은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은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Gilligan, 1982; Juujarvi, 2003). Lyons(1983)는 8~60세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자기묘사와 도덕판단 양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접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두 가지 도덕지향성을 사용하였지만, 남성은 타인과 분리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아를 묘사하였고, 여성은 일관되게 타인과 상호연결을 의식하며 자아를 묘사했다. 더욱이 남성의 36%가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으며, 여성의 37%가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Gilligan과 Attanucci(1988)는 청소년과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도덕적 갈등과 선택의 경험을 묘사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한 가지 지향성을 사용한 사람은 25명(31%)이었고, 두 가지 지향성을 모두 사용한 연구대상자는 55명(68%)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지향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지향성 중에서 한 가지 지향성을 75% 이상 사용하여 한 가지 지향성을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53명(66%)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배적인 초점 현상’이라 하였는데, 여성 22명 중 12명(54%)이 배려지향성에 지배적인 초점 현상을 보였으며, 남성 31명 중 30명(96%)이 정의지향성에 지배적인 초점 현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 결과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두 가지 지향성을 사용하지만 여성은 배려를, 남성은 정의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객관화된 도덕지향성 척도로도 검증되었다. Yacker와 Weinberg(1990)는 도덕지향성이 성별과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아동기 딜레마를 이용한 도덕지향성 척도(The Moral Orientation Scale Using Childhood Dilemmas: MOS)’를 개발하여 법과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남녀 대학생에게 12개의 딜레마를 읽고 배려지향성과 정의지향성 중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두 가지 도덕지향성을 사용하였으나, 남자는 정의지향성을, 여자는 배려지향성을 더 선호하였다. 특히 남학생 중 법 전공자들이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여학생 중 사회사업 전공자들이 배려지향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Gilligan(1982)의 주장이 증명되었다.

이나현(1997)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 딜레마를 이용하여 도덕 지향

성을 연구한 결과, 여성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딜레마나 관련이 없는 딜레마 모두에서 더욱 배려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은 자기와 관련된 딜레마에서는 배려지향적이었으나 자신과 관련이 없는 딜레마에서는 정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단계나 성에 따라 도덕지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옥분과 곽경화(2002)는 고등학생 92명과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은 제1.5수준이, 성인 여성은 제2.0수준이 가장 많아,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배려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남학생(28%)과 여학생(23%) 모두 제1.5수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녀 모두 제2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illigan의 주장과는 달리 도덕지향성이 반드시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도덕지향성과 성 차이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Ford와 Lowery(1986)는 202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실제에서 경험한 도덕 갈등을 기술하고 정의와 배려가 사용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여성은 배려지향성이 약간 더 높았고 남성은 정의 지향성이 약간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성별에 관계없이 양쪽 지향성들을 거의 동등하게 사용한다고 보았다.

Friedman 등(1987)도 1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진술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은 정의와 배려지향성의 사용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지향성이 성과 관련이 있다는 Gilligan의 견해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은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을 모두 사용하지만 남성은 정의지향성을 여성은 배려지향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igan & Attanucci, 1988; Mahlstedt, 1995; Yacker &

Weinberg, 1990; Lyons, 1983; 이나현, 1997). 그러나 소수의 연구에서는 연령 단계에 따라 성 차이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으며(정옥분, 광경화, 2002), 몇몇 연구에서는 도덕지향성이 반드시 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Ford & Lowery, 1986; Friedman 등, 1987).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려지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amm, 1992; Brown et al, 1988; Meyers, 2001; Walker & de Vries, & Trevethan, 1987; Skoe & Diessner, 1994)가 대다수로 나타났으나 성인기에는 연령과 함께 배려지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Lyons, 1983; Lavell, 2001)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발달한다고 주장한 Gilligan(1982)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인기 이후에는 Gilligan(1982)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맥락과 도덕지향성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맥락(context)의 중요성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도덕성과 관련하여 맥락이라는 용어가 부각된 것은 Gilligan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이론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맥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연구가 적은 실정이다. Gilligan(1982)은 여성의 도덕판단은 맥락적이어서 특정한 인간관계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할 경우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 남성은 도덕문제를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서 공정성의 논리에 준하여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등 맥락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Gilligan, 1997).

맥락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소 다르다. Brown(1988)은 상황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에 주목하는 경향을, Collins(1992)는 도덕적 갈등을 유발한 사건의 상황이나 그 사건에 대한 인식, 관계들, 제도적 환경, 경제적 사항, 교육 경험,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매체의 영향, 도덕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제약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맥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iamonti(1993)는 도덕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와 도덕 문제의 발생 장소, 도덕판단자의 나이와 경험 등을 맥락으로 보았으며, Hight(2004)는 맥락을 도덕딜레마에 대해 의미를 만들고 응답하게 하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맥락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도덕판단과 관련이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 사건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맥락은 크게 관계맥락과 상황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계맥락과 도덕지향성

Gilligan(1982)은 도덕 발달을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과정이라 보아 배려윤리를 관계윤리라고 하였다. Noddings(1984, 2002)도 아동은 애착과 애정의 관계 속에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배우게 되므로 배려윤리를 관계윤리라 하였다. 그는 배려윤리의 토대가 되고 있는 관계를 ‘서로를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연결’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갖게 되는 일련의 만남’으로 정의하였다.

Hight(2004)는 관계의 친밀함이나 가까움이 사람과 조직,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가족, 친한 친구들, 그리고 중요한 타인들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 속에 이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관계맥락이 도덕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설명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은 수세기 동안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배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다. 여성은 자신의 행위를 남성처럼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검증되는 것이다. 여성의 시각에서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판단준거인 규칙이나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결정적일 수가 없어 타인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므로 충분히 성숙된 도덕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박병춘, 1999).

Gilligan(1981)은 임신중절을 고민하고 있는 27세의 여대생을 면접하면서 여성의 도덕판단이 맥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임신중절을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는 여성은 보편타당하고 일반화된 입장에서 도덕판단을 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여성은 자신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도덕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가족과 친구, 중요한 타인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합리성보다 관계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Gilligan(1981)은 이것이 여성의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맥락은 여성적 시각에서 생성된 것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관계맥락은 도덕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또는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 형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영

아기에 아들과 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딸의 경우, 어머니가 딸을 자신과 연속선상에 놓고 양육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애착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아들은 어머니 자신과 대비되는 남성으로 양육하게 되어, 남아 스스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자신이 최초로 느낀 사랑과 공감대로부터 단절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아는 독립과 개인화와 관련이 있는 성 정체감을 형성하고, 여아는 애착 및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성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Lefton, 2000).

양육방식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인간관계 형성 유형을 달라지게 하여 남성의 인간관계는 서열구조로, 여성은 그물구조로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남성의 서열식 인간관계 구조는 정상을 차지하기를 열망하고 남들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성은 도덕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자신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로 인식하여 판단한다. 반면, 여성의 그물구조식 인간관계는 관계의 중심에 있고자하여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를 놓고 갈등한다. 그 결과, 남성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긴 친밀성때문에 위험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성은 공적인 상황에서 얻은 성공때문에 위험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Gilligan, 1982).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의 차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은 자기묘사를 할 때, 인간관계와 관련된 활동은 언급하지 않는다. 가끔 타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정인이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의 위치와 능력과 신념, 신체적 특징의 묘사를 통해 자신을 남들로부터 구분한다. 반면에 여성은 자신이 맺었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 여성의 정체감은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며, 책임과 배려의 척도를 통해 측정된다. 여성의 선천적인 복종적 성향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

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보살핌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한다. 반면에 남성은 성인 중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친밀성, 인간관계 및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맥락은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Lantsberger, 1993).

Gilligan(1982)은 11세 남아와 여아 각각 1명에게 ‘한 직장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접하였다. 그 결과, 남자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먼저 고려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여 남들로부터 침해받을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여자는 세부적인 사항을 중요시하여 사람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졌다. 즉, 여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신과 남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였다. 또한 여자는 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남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며, 자기 행위의 범주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누구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침범의 행위가 아니라 배려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남자는 독립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관계성을 고려하지만 여자는 관계성을 전제한 후 나머지 변수를 고려한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여아의 인간관계는 배려하고 보호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며, 남자는 독립과 자율의 관계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판단하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시각에서는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는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가’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파악한

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관계의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는 깊이 배려하게 되고, 먼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벼운 배려를 하게 된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려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즉, 관계의 친밀함이나 가까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하게 되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집중해야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proximate other)’이라는 것이다(Noddings, 2002).

Gilligan(1982)은 하인즈의 딜레마를 가지고 11세 여아 1명과 남아 1명을 면접한 결과, 남아는 도덕딜레마를 수학적문제처럼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했다. 반면, 여아는 아동기부터 친밀성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의견까지 수렴하고 도덕판단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약을 훔쳐 아내를 구한다해도 하인즈가 감옥에 간다면 아내의 병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내는 계속 남편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아내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Johnston(1988)은 초기 청소년(11~15세)의 도덕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솝 우화 2편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석·해결하도록 하였다. ‘여물통의 개’ 우화에서 개는 황소의 여물통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황소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 개가 깔고 누워있던 건초를 먹으려 할 때 개는 나가기를 거절한다. ‘호저와 두더지’ 우화에서는 두더지 가족은 집 없는 호저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동굴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많은 호저 때문에 두더지 가족이 매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다.

연구결과, ‘여물통의 개’ 우화에서 남자의 73%가 정의지향성을 사용하였고 여자의 50%가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사용하여 성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호저와 고슴도치’ 우화는 남녀 청소년 중 60%가 정의의 관점을 나타내어 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물통의 개’ 우화에서 개는 황소의 여물통 침입자로 볼 수 있다. ‘호저와 고슴도치’ 우화에서는 성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조사를 하였다. 개와 황소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호저와 두더지는 호저의 바늘 때문에 두더지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하여 친밀감을 주는지의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아들은 동물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아들은 동물들이 서로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는 경향이 있어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Killen(1990)은 1, 3, 5, 7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가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포함되지 않는 ‘규율 위반’과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갈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면접하였다. 그 결과, 규율 위반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강해졌다. 또한 규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 반면, 인간관계가 포함된 도덕적 갈등을 다룰 때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먼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난 후, 공정해지려 하였다. 또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다룰 때 낯선 사람보다 친밀한 사람을 보호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음식을 분배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방인보다 친밀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는 가깝거나 친근한 관계의 수준이 도덕 추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Lantsberger(1993)는 대학생 149명에게 부모, 형제, 직장동료에 대한 도덕지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성에 관계없이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인간관계일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사용하고,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정의지향성을 보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가정에서 가까운 관계로 인식된 배우자, 직장에서 가까운 관계로 인식된 동료, 가정에서 먼 관계로 인식된 부모-자녀관계,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먼 관계로 인식된 동료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사용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의 특성에 근거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Lever(1976)는 10~11세 남녀 아동 181명을 대상으로 놀이과정을 관찰한 결과, 관계형성의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아는 경쟁적 상황에서 여러 집단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놀이를 하였지만, 여아는 친구관계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놀이를 계속하였다. 놀이집단 규모도 남아에 비해 여아는 소규모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아는 관계가 깨지면 놀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다. Lever(1976)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남성은 직업중심적이지만 여성은 관계중심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Mahlstedt(1994)은 남녀 대학원생 97명에게 도덕지향성과 ‘감정이입’, ‘자율성’, ‘지배성’,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은 62%가 정의지향성을, 여성의 60%가 배려지향성을 사용하여 성에 따라 선호하는 도덕지향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와 배려지향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배려지향성을 가진 학생이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affiliation)’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지향성을 보인 여학생은 정의지향성을 가진 여학생과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배려지향성을 보인 남학생의 경우에는 배려지향성을 보인 여학생보다 더 낮은 수준의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와 정의지향성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가 높아질 때 정의지향성을 선택한 비율이 감소하여 정의지향성을 가진 여학생은 타인과의 관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 차이가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를 결정하여 도덕지향성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여학생은 배려지향성과 함께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인 남학생은 배려지향성이 '지배성'과 함께 증가하였다. 결혼한 학생은 미혼인 학생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였다. 이것은 결혼이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고 자율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나현(1997)의 연구에서도 관계맥락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성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자기와 관련된 딜레마일 때 배려지향적이었으나 타인과 관련된 딜레마일 때는 정의지향적인 반면, 여성은 두 유형의 딜레마에서 모두 배려지향적이었고, 타인 관련 딜레마에서는 더욱 배려지향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주위사람들의 상반된 요청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적으나, 여성은 관계에 민감하여 타인에게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하여 남성은 공정성을 중시하였고, 여성은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안락사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했을 때, 남성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들어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반면, 여성들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Pratt 등(2001)은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남녀 대학생의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과 질문지를 이용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 차이와 봉사활동은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성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집단이나 남성집단에 비해 배려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정의지향성이 매우 낮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보다 더 연결된 자아로 진술하였다.

<표 1> 관계맥락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요약

학 자	대 상	연구결과
Killen(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의 친밀감이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딜레마 내용에 따라 달라짐
Johnston(1990)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자신의 갈등에 초점 맞춰 해결 여성: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
Lantsberger(1993)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밀한 관계일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음
Mahlstedt(1994)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나타낸 사람이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경향이 강함. 배려지향성을 가진 여학생과 남학생은 타인과 관계 맺으려는 욕구에 차이가 있음
이나현(1997)	대학생,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자신과 관련된 딜레마일 때 배려지향적임 여성: 자신과 타인이 관련된 딜레마에서 배려지향적이나 타인이 관련된 딜레마에서 더 배려지향적임
Crandall(1999)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적 딜레마에서 남성은 정의지향성을, 여성은 배려지향성을 보임 여성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던 시간이 길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보임
Pratt 등(2001)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이 배려지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Smith(2005)	성인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착의 정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은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보임

Smith 등(2005)은 88명의 성인 여성에게 애착과 도덕지향성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받은 집단, 신체적 학대를 받은 집단, 학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애착의 정도를 연구한 결과, 성적 학대를 받은 집단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집단의 여성은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고, 학대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의 여성은 안정애착을 보였다. 이 세 집단 여성들의 도덕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집단 간에 차이 없이 세 집단 모두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에 여아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경험이 배려지향성과 관계있다는 Gilligan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맥락 안에서 도덕딜레마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Johnston, 1988; Killen, 1990; Mahlstedt, 1994; Lantsberger, 1993; Crandall, 1999; Pratt 등, 2001; Smith, 2005). 그러나 이러한 관계맥락에 따른 도덕지향성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나현(1997)의 연구 정도가 보고되고 있어 우리 문화권에서의 경향을 말하기는 어렵다.

2) 상황맥락과 도덕지향성

Gilligan(1982)은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에 특정한 관계와 더불어 딜레마가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도덕적 상황은 독특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ntsberger(1993)도 도덕지향성은 인간관계의 친근감과 함께 딜레마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소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Noddings(2002)도 여성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자신을 관련시키거나 주어진 선택에 대해 자신이 감수해야 할 책임을 가정하면서 도덕적 문제에 접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에서는 행위의 보편성이나 추상성을 강조하기보다 행위자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situation-specific context), 즉 상황맥락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삶의 실질적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 정확한 도덕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Gilligan, 1982). 따라서 한 사람의 도덕판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정,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 학교, 사회) 등 도덕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상황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Fried, 2000). 이러한 이유 때문에 Gilligan(1982)은 등장인물의 고유한 인생 역정과 마음 상태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문제의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상적 딜레마 상황의 질문지를 통해 도덕성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Noddings(1984)도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딜레마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인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황에 더 근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Gilligan은 도덕지향성을 연구할 때, 본인이나 가까운 주변사람이 최근에 실제로 처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야기로 만든 실제적 딜레마를 사용하였다. 배려지향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구체적 맥락에서 개별적인 갈등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나현, 1997).

실제적 딜레마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성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여성들은 주로 타인과 자기를 연결하는 개인 딜레마를 보고하는 반면, 남성들은 주로 타인과 연결됨 없이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딜레마를 만든 비개인적인 딜레마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Walker, et al, 1987). Wark와 Krebs(1996)도 실제적 딜레마를 이용하여 도덕판단 지향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배려를, 남성은 정의지향적 도덕추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남성들은 다른 종류의 실제적 딜레마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맥락이란 도덕문제가 발생하는 특정한 시·공간과 전후상황을 포함하며, 나아가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성장 발달 과정, 개인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특수한 환경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맥락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적은 편이지만, 상황 맥락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은 편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상황맥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illigan 등(1987)은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를 보고 난 후, 남성과 여성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상황과 서로 연결되어 일하는 상황을 남녀 대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친밀한 인간관계 때문에 위협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성들은 공적인 성취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며, 경쟁적 상황에서 얻은 성공 때문에 위협이 일어난다고 판단하였다.

Diamonti(1993)는 규율위반 행동에 관한 청소년의 도덕지향성을 연구하기 위해 14~18세 남녀 청소년 137명을 대상으로 규율위반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의 진술에서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을 비슷하게 사용하여 성 차이가 없어 보였으나, 딜레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었다. 즉, 알콜 반입 위반 상황에서 남성의 50%, 여성의 60%가 정의지향성을 나타냈다. 부정직한 상황에 대해서는 남성의 34.2%가 정의지향성을 나타냈으나 여자는 두 가지 지향성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기숙사 학교라는 상황맥락이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Lantsberger(199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딜레마의 발생 장소가 집인지 이웃인지 혹은 직장인지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정의지향성 사용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Rothbart 등(1986)은 50명의 대학생들에게 가상적 딜레마와 실제적 딜레마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정의지향성을 여학생은 배려지향성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남녀 모두 정의지향적 반응들이 더 높았으나, 실제적 딜레마에서는

배려지향적 반응들이 더 높아 도덕판단 연구에 있어 성 차이 뿐만 아니라 상황맥락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randall 등(1999)은 111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실제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딜레마 두 편을 가지고 도덕지향성을 알아보았다. 하나는 ‘대리모 사건’에 대한 딜레마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 직후 ‘뒤바뀐 아기들’에 대한 딜레마였다. 사전에 아기를 낳아주기로 계약했던 아기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대리모 사건’에 대한 딜레마와 자녀를 10년간 양육했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판명되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았다. ‘뒤바뀐 아기들’에 대한 딜레마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은 배려지향성이 높았으나 대리모 사건 딜레마에서는 정의지향성을, ‘뒤바뀐 아기들’ 딜레마는 배려지향성이 높아 딜레마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여성이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을 다르게 보인 것은 ‘뒤바뀐 아기들’ 딜레마에서 양육한 부모가 아이와 관계를 맺은 시간이 ‘대리모 사건’에 비해 길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Skoe 등(2002)은 실제적 상황과 가상적 상황에서의 도덕지향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성인 20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상적 상황에서는 특별한 도덕지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적 상황에서는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 모두를 사용하여 가상적 상황에서도 실제적 상황에서의 도덕지향성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Shira 등(2002)은 5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실제적 도덕딜레마를 쓰게 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이 경험한 딜레마는 친사회적 딜레마(28명: 여자 17명, 남자 11명) (48%), 반사회적 딜레마 (52명: 여자 28명, 남자 24명) (89%), 철학적 딜레마 (36명: 여자 15명, 남자 21명)(62%)로 범주화되었다. 세 집단이 보고한 딜레마의 내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관계없이 친사회적 딜레마를 보고한 학생은 배려지향성을, 반사회적 딜레마를 보고한 학생은 정의지향

성을 보여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uujarvi(2003)도 66명의 대학생에게 가상적 딜레마와 실제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도덕지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가상적 딜레마는 배려지향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반면, 실제적 상황 딜레마는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적 딜레마 중에서도 친사회적 딜레마는 배려지향성을, 반사회적 딜레마는 정의지향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황맥락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요약

학 자	대 상	연구결과
Gilligan(1987)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대한 인식에 성 차이 있음 ▪ 남성: 사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느낌 ▪ 여성: 공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느낌
Diamonti(1993)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레마가 발생된 장소와 딜레마의 내용에 따라 성 차이 있음
Lantsberger(1993)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레마의 발생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정에서 발생된 딜레마보다 직장생활에서 더 정의지향적임
Skoe 등(2002)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적 상황에서는 특별한 도덕지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실제상황에서는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응답함
Shira 등(2002)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경험한 실생활 딜레마가 친사회적 딜레마인 경우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반사회적 딜레마를 보고한 학생은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보여 자신이 경험한 딜레마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에 차이를 보임
Juujarvi(2003)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적 딜레마는 도덕지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적 딜레마에서는 친사회적 딜레마에서는 배려지향성을 반사회적 딜레마에서는 정의지향성을 나타냄

이상의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덕지향성이 상황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상황변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3개, 인천광역시에서 1개, 경기도에서 2개 중학교를 포함하여 총 6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제외한 62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3세	103 (49.5)	105 (50.5)	208 (100.0)
14세	106 (50.5)	104 (49.5)	210 (100.0)
15세	105 (50.0)	105 (50.0)	210 (100.0)
전체	314 (50.0)	314 (50.0)	628 (10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교 각각 1개교에서 2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문항 수정 및 축소, 응답 소요시간,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 제작을 위해 교육학 박사 3인과 검사의 각 문항의 내용이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였고, 중학교 교사 3인에게 본 도구가 중학생 연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예비검사에서 사용된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와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가 각각 ‘일반적 도덕지향성’ 80문항, ‘맥락적 도덕지향성’ 80문항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였다. 본 검사는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도덕성’ 40문항과 ‘맥락적 도덕성’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연구절차

연구절차	연구의 진행 일시 및 상황	
예비검사	2008. 9. 25 ~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교 각각 1개교에서 2학년 학생 120명 ▪ 연구도구: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80문항,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80문항
검사도구 수정	2008. 7. 15 ~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타당도: 교육학 박사 3인의 검증 ▪ 연구도구의 적합성: 중학교 교사 3인의 검토
본 검사	2008. 11. 27 ~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서울특별시(3개 교육청)와 인천광역시(1개 교육청), 경기도(2개 교육청) 소재 중학교 총 6개교에서 1, 2, 3학년 학생 628명 ▪ 연구도구: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40문항,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40문항

3. 연구도구

1)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사태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판단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Yacker와 Weinberg(1990)가 성인의 도덕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아동기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지향성 척도(The Moral Orientation Scale Using Childhood Dilemmas: MOS)’를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것이다. 문항내용의 수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학생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2002)’와 정옥분, 광경화(2002)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기초로 하였으며,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도덕(2007)’ 등을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가상적 딜레마 사태에서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자신과 같은 성 및 자신과 같은 학년의 학생이 해결해야 할 도덕딜레마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형식이다. 이 척도는 정의지향성 20문항과 배려지향성 20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향성은 각각 가정상황 10문항(부모관계: 5문항, 형제관계: 5문항)과 학교상황 10문항(교사관계: 5문항, 친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 1점)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부록 1> 참조). 본 검사에서의 신뢰도는 정의지향성은 .84, 배려지향성은 .80으로 나타났다.

2)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사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계를 고려하여 내리는 도덕판단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antsberger(1993)가 맥락이 도덕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객관식 도구인 ‘맥락적 도덕추론 척도(Contextual Morality Reasoning Scale: CMRS)’를 우리나라 중학생에 맞게 수정되었다. 문항내용의 수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학생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덕적 판단력 검사

(2002)'와 정옥분, 광경화(2002)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기초로 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도덕(2007)' 등을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적 딜레마 사태에서의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부모, 형제, 교사, 친구에게 일어나는 도덕적 딜레마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형식이다. 이 척도는 정의지향성 20문항과 배려지향성 20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향성은 각각 가정상황 10문항(부모관계: 5문항, 형제관계: 5문항)과 학교상황 10문항(교사관계: 5문항, 친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 1점)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부록 2 참조>). 본 검사에서의 신뢰도는 정의지향성은 .83, 배려지향성은 .78로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와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의 신뢰도

		일반적 도덕성		맥락적 도덕성	
		정의지향성	배려지향성	정의지향성	배려지향성
가정	부모	.79	.67	.78	.60
	형제	.82	.69	.76	.69
	합계	.79	.72	.77	.70
학교	교사	.79	.70	.75	.64
	친구	.82	.72	.79	.75
	합계	.78	.71	.77	.69
전 체		.84	.80	.83	.78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변량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1.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 차이 분석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정의지향성

중학생들이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일반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성을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각 변인별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남	3.02	.89	2.90	.91	3.62	.64	3.18	.88
여	3.04	.81	3.29	.73	3.55	.78	3.29	.80
전체	3.03	.85	3.10	.85	3.59	.71	3.24	.84

<표 6>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별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다(13세: $M=3.03$, $SD=.85$, 14세: $M=3.10$, $SD=.85$, 15세: $M=3.59$, $SD=.71$). 또한 성별로는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여자($M=3.29$, $SD=.80$)가 남자($M=3.18$, $SD=.88$)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2	38.99	19.49	30.646***
성	1	1.94	1.94	3.055
연령×성	2	6.28	3.14	4.940**
오차	622	395.75	.63	
합계	628	7032.86		
$R^2=.107$ (Adjusted $R^2=.100$)				

** $p < .01$, *** $p < .001$

<표 6>과 <표 7>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0.646$, $p<.001$). 사후검증 결과, 15세 중학생($M=3.59$, $SD=.71$)이 13세($M=3.03$, $SD=.85$) 및 14세 중학생($M=3.10$, $SD=.85$)에 비해 높은 정의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의 사용에서 남녀 간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940$,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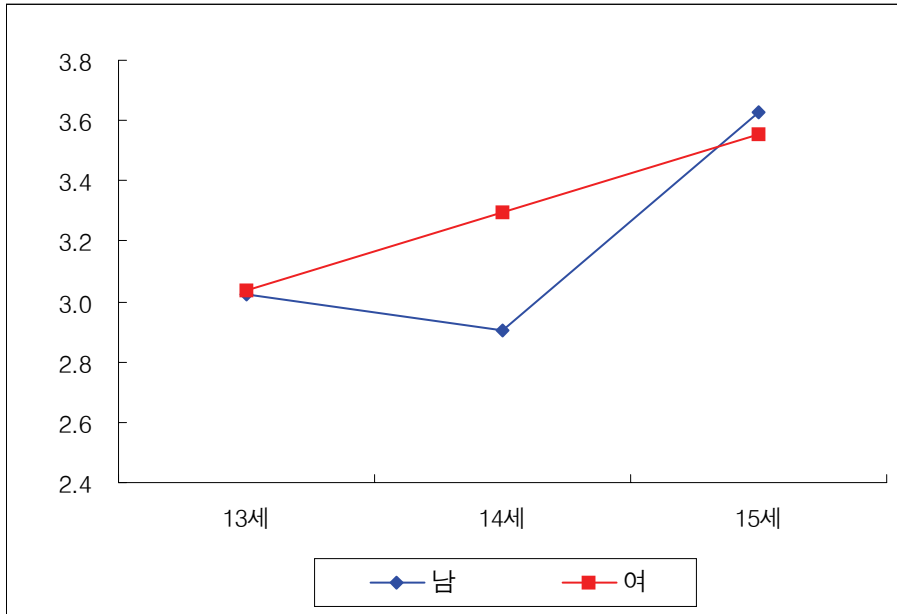
<표 8>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at 남	2	31.41	15.71	23.351***
연령 at 여	2	13.99	7.00	11.660***
성별 at 13세	1	.01	.01	.017
성별 at 14세	1	7.96	7.96	11.673**
성별 at 15세	1	.26	.26	.52

** $p < .01$, *** $p < .001$

<표 8>을 보면, 남학생($F=23.351$, $p<.001$)과 여학생($F=11.660$, $p<.001$) 모두 연령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남학생은 15세($M=3.62$, $SD=.41$)가 13세($M=3.02$, $SD=.89$)와 14세($M=2.90$, $SD=.91$)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의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15세: $M=3.55$, $SD=.79$, 14세: $M=3.29$, $SD=.73$, 13세: $M=3.04$, $SD=.81$). 연령에 따라서는 14세에서 특히 여학생($M=3.29$, $SD=.73$)이 남학생($M=2.90$, $SD=.91$)에 비해 높은 정의지향성을 보였다($F=11.673$, $p<.01$).

이를 [그림 1]을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학생은 13세($M=3.02$, $SD=.89$)에 비해 14세($M=2.90$, $SD=.91$)에 낮아지다가 15세($M=3.62$, $SD=.64$)에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 중학생은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발달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자 중학생은 변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중학생 모두 15세에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령 및 성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2) 배려지향성

중학생들의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이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해당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표 9>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남	2.76	.76	2.82	.81	2.36	.72	2.65	.79
여	2.88	.66	2.66	.67	2.55	.66	2.70	.67
전체	2.82	.71	2.74	.75	2.46	.70	2.67	.73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별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연령과 함께 감소하고 있다(13세: $M=2.82$, $SD=.71$, 14세: $M=2.74$, $SD=.75$, 15세: $M=2.46$, $SD=.70$).

또한 성별로는 여학생이($M=2.70$, $SD=.67$) 남학생($M=2.65$, $SD=.79$)보다 높았다. 이러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의 평균간에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2	15.23	7.61	14.842***
성	1	.39	.39	.766
연령×성	2	3.59	1.79	3.502*
오차	622	319.13	.51	
합계	628	4829.46		
$F^2=.057$ (Adjusted $F^2=.049$)				

* $p < .05$, *** $p < .001$

<표 9>와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4.842$, $p<.001$). 사후검정 결과, 15세 중학생($M=2.46$, $SD=.70$)이 13세($M=2.82$, $SD=.71$) 및 14세 중학생($M=2.74$, $SD=.75$)에 비해 낮은 배려지향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의 사용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502$, $p<.0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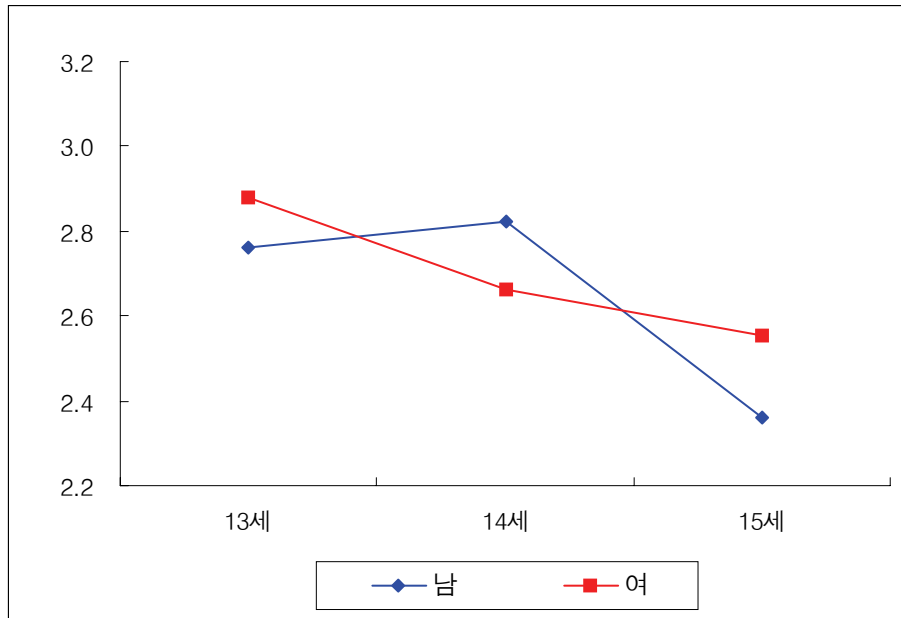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at 남	2	13.16	6.58	11.133***
연령 at 여	2	5.72	2.86	6.567**
성별 at 13세	1	.71	.71	1.405
성별 at 14세	1	1.33	1.33	2.399
성별 at 15세	1	1.94	1.94	4.055*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을 보면, 남학생($F=11.133$, $p<.001$)과 여학생($F=6.567$, $p<.01$) 모두 연령 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남학생은 13세($M=2.76$, $SD=.76$)와 14세($M=2.82$, $SD=.81$)가 15세($M=2.36$, $SD=.72$)에 비해 배려지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13세($M=2.88$, $SD=.66$)가 14세($M=2.66$, $SD=.67$)와 15세($M=2.70$, $SD=.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5세 연령에서 특히 여학생($M=2.55$, $SD=.66$)이 남학생($M=2.36$, $SD=.72$)에 비해 높은 배려지향성을 보였다($F=4.055$, $p<.01$).

이것을 [그림 2]를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 도덕성에서 배려지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13세: $M=2.88$, $SD=.66$, 14세: $M=2.66$, $SD=.67$, 15세: $M=2.55$, $SD=.66$), 남학생은 13세($M=2.76$, $SD=.76$)보다 14세($M=2.82$, $SD=.81$)에 약간 높아지다가 15세($M=2.36$, $SD=.72$)에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학생은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이 연령과 함께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자 중학생은 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중학생 모두 15세에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 및 성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연구문제 1-2.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관계맥락에 따른 정의지향성

중학생은 일반적 도덕성에서의 정의지향성을 친근함의 정도에 따른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2>와 같다.

<표 12>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부모	남(313)	2.98	.94	2.88	.98	3.62	.67	3.16	.93
	여(315)	3.07	.93	3.32	.81	3.61	.79	3.33	.87
	전체(628)	3.03	.93	3.10	.92	3.61	.73	3.25	.91
형제	남(313)	2.90	1.00	2.84	.96	3.66	.70	3.13	.97
	여(315)	3.04	.88	3.30	.83	3.58	.83	3.31	.87
	전체(628)	2.97	.94	3.07	.93	3.62	.77	3.22	.93
교사	남(313)	3.16	.86	3.00	.95	3.59	.68	3.25	.87
	여(315)	3.03	.92	3.17	.83	3.53	.85	3.24	.89
	전체(628)	3.10	.89	3.08	.89	3.56	.77	3.25	.88
친구	남(313)	3.05	1.08	2.89	1.07	3.63	.74	3.19	1.02
	여(315)	3.00	.94	3.38	.81	3.51	.89	3.30	.91
	전체(628)	3.02	1.01	3.14	.98	3.57	.82	3.24	.97

또한 <표 12>에 나타난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평균이 관계맥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관계(부모/형제/교사/친구)	3	.30	.10	.129
연령×관계	6	2.42	.40	.524
성×관계	3	3.38	1.12	1.460
연령×성×관계	6	2.84	.47	.613
오차	2488	1922.95	.77	
합계	2512	28480.32		

$F^2=.093(\text{Adjusted } F^2=.085)$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 등 관계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관계, 성×관계, 연령×성×관계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

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관계맥락에 따른 배려지향성

다음으로,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4>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부모	남	2.85	.92	2.89	.87	2.33	.73	2.69	.88
	여	2.94	.85	2.69	.74	2.58	.71	2.74	.78
	전체	2.89	.88	2.79	.81	2.45	.73	2.71	.83
형제	남	2.65	.85	2.71	.90	2.38	.82	2.58	.87
	여	2.92	.79	2.62	.72	2.57	.81	2.70	.79
	전체	2.78	.83	2.66	.82	2.48	.82	2.64	.83
교사	남	2.90	.84	2.99	.89	2.30	.74	2.73	.88
	여	2.77	.82	2.69	.80	2.47	.77	2.64	.80
	전체	2.83	.83	2.84	.85	2.39	.76	2.69	.84
친구	남	2.66	.89	2.70	.93	2.43	.85	2.60	.90
	여	2.90	.86	2.66	.86	2.60	.83	2.72	.86
	전체	2.78	.88	2.68	.90	2.52	.84	2.66	.88

<표 14>에 나타난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평균이 관계맥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관계(부모/형제/교사/친구)	3	1.92	.64	.939
연령×관계	6	6.27	1.04	1.528
성×관계	3	4.42	1.47	2.155
연령×성×관계	6	2.94	.49	.718
오차	2488	1702.63	.68	
합계	2512	19759.52		
$F^2=.052(\text{Adjusted } F^2=.043)$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 등 관계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관계, 성×관계, 연령×성×관계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상황맥락에 따른 정의지향성

중학생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사적인 가정상황인지 혹은 공적인 학교상황인지에 따라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이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나타난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평균이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6>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가정	남	2.94	.93	2.86	.91	3.64	.64	3.15	.90
	여	3.06	.87	3.31	.78	3.59	.76	3.32	.83
	전체	3.00	.90	3.08	.88	3.61	.70	3.23	.87
학교	남	3.10	.90	2.95	.94	3.61	.66	3.22	.89
	여	3.02	.86	3.28	.73	3.52	.83	3.27	.83
	전체	3.06	.88	3.11	.86	3.56	.75	3.25	.86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 등 상황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관계, 성×관계, 연령×성×관계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상황(가정/학교)	1	.04	.04	.067
연령×상황	2	.68	.34	.501
성×상황	1	1.17	1.17	1.722
연령×성×상황	2	.32	.16	.238
오차	1244	845.60	.68	
합계	1256	14122.04		

$R^2=.103(\text{Adjusted } R^2=.095)$

(4) 상황맥락에 따른 배려지향성

다음으로,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8>과 같다.

<표 18>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가정	남	2.75	.83	2.80	.83	2.36	.74	2.63	.82
	여	2.93	.75	2.66	.67	2.57	.70	2.72	.72
	전체	2.84	.79	2.73	.76	2.47	.73	2.68	.77
학교	남	2.78	.78	2.85	.85	2.37	.75	2.66	.82
	여	2.83	.69	2.67	.73	2.54	.67	2.68	.71
	전체	2.80	.73	2.76	.80	2.45	.71	2.67	.76

또한,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평균이 상황맥락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상황(가정/학교)	1	.00	.00	.016
연령×상황	2	.22	.11	.195
성×상황	1	.36	.36	.641
연령×성×상황	2	.13	.06	.117
오차	1244	702.83	.56	
합계	1256	9724.22		
$F^2=.053(\text{Adjusted } F^2=.045)$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 등 상황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연령×상황, 성×상황, 연령×성×상황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일반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 차이 분석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은 배경변인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정의지향성

중학생들은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성을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0>과 같다.

<표 20>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13세		14세		15세		전 체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남학생	2.94	.68	3.03	.77	2.84	.96	2.94	.81
여학생	3.07	.69	2.89	.76	2.71	.93	2.89	.81
전 체	3.01	.69	2.96	.77	2.78	.94	2.91	.81

<표 20>를 보면, 연령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13세: $M=3.01$, $SD=.69$, 14세: $M=2.96$, $SD=.77$, 15세: $M=2.78$,

$SD=.94$), 성별로는 남학생이($M=2.94$, $SD=.81$), 여학생($M=2.89$, $SD=.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2	6.27	3.13	4.815**
성	1	.34	.34	.533
연령×성	2	2.37	1.18	1.823
오차	622	405.15	.65	
합계	628	5750.04		
$F^2=.022(\text{Adjusted } F^2=.014)$				

** $p < .01$

<표 21>을 보면,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815$, $p<.01$). 사후검정 결과, 15세($M=2.78$, $SD=.94$)가 13세($M=3.01$, $SD=.69$)와 14세($M=2.96$, $SD=.77$)에 비해 낮은 정의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의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맥락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성의 연령×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배려지향성

중학생들의 연령 및 성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에서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2>와 같다.

<표 22>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남	2.93	.56	3.04	.66	3.25	.83	3.07	.70
여	3.10	.63	3.32	.75	3.42	.67	3.28	.70
전체	3.02	.60	3.18	.72	3.33	.76	3.18	.71

<표 22>에 나타난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13세: $M=3.02$, $SD=.60$, 14세: $M=3.18$, $SD=.72$, 15세: $M=3.33$, $SD=.76$), 성별로는 여학생($M=3.28$, $SD=.70$)이 남학생($M=3.07$, $SD=.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연령	2	10.01	5.00	8.804***
성	1	2.75	2.75	4.837*
연령×성	2	1.29	.64	1.142
오차	622	353.63	.56	
합계	628	655.02		

$F^2=.038(\text{Adjusted } R^2=.031)$

* $p < .05$, *** $p < .001$

<표 22>와 <표 23>를 보면,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804$, $p<.001$). 사후검정 결과, 15세 중학생($M=3.33$, $SD=.76$)의 배려지향성이 13세 중학생($M=3.02$, $SD=.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M=3.28$, $SD=.70$)이 남학생($M=3.07$, $SD=.70$)에 비해 맥락적 도

덕성의 배려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837, p<.05$).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연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2.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관계 및 상황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관계맥락에 따른 정의지향성

중학생은 맥락적 도덕성에서의 정의지향성을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4>와 같다.

<표 24>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부모	남	2.96	.81	3.05	.85	2.88	1.04	2.96	.90
	여	3.20	.73	2.98	.87	2.72	1.00	2.97	.89
	전체	3.08	.78	3.02	.86	2.80	1.02	2.97	.90
형제	남	2.81	.79	2.94	.89	2.85	.98	2.86	.89
	여	3.07	.77	2.88	.90	2.78	.90	2.91	.86
	전체	2.94	.79	2.91	.89	2.82	.94	2.89	.88
교사	남	3.07	.67	3.15	.82	2.90	1.01	3.04	.85
	여	3.05	.88	2.86	.78	2.70	1.08	2.87	.93
	전체	3.06	.78	3.00	.81	2.80	1.05	2.95	.89
친구	남	2.94	.89	3.00	.93	2.73	.99	2.89	.94
	여	2.95	.86	2.85	.79	2.65	.95	2.82	.88
	전체	2.95	.87	2.92	.87	2.69	.97	2.85	.91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맥락에 따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부모($M=2.97$, $SD=.90$), 교사($M=2.95$, $SD=.89$), 형제($M=2.89$, $SD=.88$), 친구($M=2.85$, $SD=.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삼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i>df</i>	<i>SS</i>	<i>MS</i>	<i>F</i>
관계(부모/형제/교사/친구)	3	5.39	1.79	2.280
연령×관계	6	2.01	.33	.425
성×관계	3	4.02	1.34	1.699
연령×성×관계	6	1.72	.28	.364
오차	2488	1962.62	.78	
합계	2512	23355.32		
$F^2=.025$ (Adjusted $F^2=.015$)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 등 관계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관계, 성×관계, 연령×성×관계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관계맥락에 따른 배려지향성

다음으로,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관계)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6>과 같다.

<표 26>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부모	남	2.96	.72	3.12	.74	3.29	.82	3.12	.77
	여	3.26	.76	3.42	.79	3.53	.66	3.40	.75
	전체	3.11	.75	3.27	.78	3.41	.75	3.26	.77
형제	남	2.81	.79	2.99	.78	3.29	.93	3.03	.86
	여	3.15	.85	3.37	.89	3.37	.75	3.30	.83
	전체	2.98	.84	3.18	.85	3.33	.85	3.16	.86
교사	남	2.98	.67	3.02	.82	3.14	.87	3.05	.79
	여	2.94	.78	3.22	.90	3.31	.85	3.15	.86
	전체	2.96	.73	3.12	.87	3.22	.86	3.10	.83
친구	남	2.98	.93	3.02	.89	3.29	.97	3.10	.94
	여	3.05	.95	3.27	.89	3.46	.82	3.26	.90
	전체	3.02	.94	3.14	.89	3.37	.90	3.18	.92

<표 26>를 보면,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평균은 부모($M=3.26$, $SD=.77$), 친구($M=3.18$, $SD=.92$), 형제($M=3.16$, $SD=.86$), 교사($M=3.10$, $SD=.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맥락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관계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관계(부모/형제/교사/친구)	3	8.22	2.74	3.981**
연령×관계	6	1.21	.20	.293
성×관계	3	3.38	1.12	1.639
연령×성×관계	6	3.66	.61	.888
오차	2488	1713.46	.68	
합계	2512	27132.56		

$F^2=.048$ (Adjusted $F^2=.039$)

** $p < .01$

<표 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계맥락별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며($F=3.981, p<.01$), 사후검정 결과,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부모, 친구, 형제, 교사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연령×관계, 성×관계, 연령×성×관계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황맥락에 따른 정의지향성

중학생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사적인 가정상황인지 혹은 공적인 학교상황인지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이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8>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가정	남	2.88	.74	3.00	.80	2.86	.98	2.91	.85
	여	3.14	.69	2.93	.82	2.75	.91	2.94	.82
	전체	3.01	.72	2.96	.81	2.81	.94	2.93	.83
학교	남	3.00	.71	3.07	.80	2.81	.97	2.96	.84
	여	3.00	.79	2.85	.75	2.68	.98	2.84	.85
	전체	3.00	.75	2.96	.78	2.74	.98	2.90	.85

<표 28>에 나타난 상황맥락(가정, 학교)별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상황(가정/학교)	1	.17	.17	.250
연령×상황	2	.26	.13	.187
성×상황	1	1.58	1.58	2.275
연령×성×상황	2	.72	.36	.520
오차	1244	865.73	.69	
합계	1256	11558.25		
$F^2=.023(\text{Adjusted } F^2=.015)$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학교상황에서 보다 가정상황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상황, 성×상황, 연령×성×상황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상황맥락에 따른 배려지향성

다음으로, 상황맥락(가정, 학교)별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0>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3세		14세		1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가정	남	2.88	.65	3.05	.67	3.29	.85	3.08	.74
	여	3.20	.73	3.39	.80	3.45	.66	3.35	.74
	전체	3.04	.71	3.22	.75	3.37	.76	3.21	.75
학교	남	2.98	.65	3.02	.72	3.21	.86	3.07	.76
	여	2.99	.72	3.24	.81	3.38	.74	3.20	.77
	전체	2.99	.68	3.13	.77	3.30	.81	3.14	.77

<표 30>에 나타난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평균이 상황맥락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황맥락별 삼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df	SS	MS	F
상황(가정/학교)	1	1.68	1.68	3.060
연령×상황	2	.07	.03	.068
성×상황	1	1.57	1.57	2.860
연령×성×상황	2	1.34	.67	1.224
오차	1244	683.98	.55	
합계	1256	13389.96		
$F^2=.055(\text{Adjusted } F^2=.046)$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 평균은 학교상황보다 가정상황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상황, 성×상황, 연령×성×상황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증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종합하면 <표 32>와 같다. 즉, 일반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높아졌다. 맥락적 도덕성에서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의 발달 경향은 다르다고 하겠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맥락에 따른 차이는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부모, 친구 및 형제, 교사 순이었다. 상황맥락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 모두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 및 관계맥락에 따른 차이는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에서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2>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 비교

구 분	일반적 도덕성		맥락적 도덕성	
	정의지향적 도덕성	배려지향적 도덕성	정의지향적 도덕성	배려지향적 도덕성
연령	13세 14세 15세	↓	↑	↑
성	남학생 여학생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관계	부모 형제 교사 친구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상황	가정 학교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차이 없음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맥락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킨 Gilligan(1982)은 여성의 도덕판단은 맥락적이어서 특정한 인간관계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할 경우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도덕판단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 남성은 도덕문제를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서 공정성의 논리에 준하여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등 맥락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Gilligan,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적 사태에서 일반적 관계 및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측정하는 일반적 도덕성과 실제적 사태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 및 상황에서 도덕판단하는 맥락적 도덕성에서 맥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 및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은 관계 및 상황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배려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관계맥락(부모, 형제, 교사, 친구)과 상황맥락(가정, 학교)에 따라 연령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으나 배려지향성은 높아졌다.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지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 맥락에 따라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지향성은 부모 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와 형제관계였고, 교사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황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 일반적인 관계 및 상황맥락에서 추상적으로 판단 할 때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Gilligan(1982)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Gilligan(1982)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특징인 타인에 대한 책임 및 대인관계와 같은 특성들이 남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법과 질서준중의 단계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이 생각하는 선을 도덕성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Kohlberg(1976)의 발달단계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Gilligan(1982)은 여성의 도덕판단은 맥락적이어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 특별한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Kohlberg(1984)가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도덕성이 높아진다고 한 Kohlberg(1984)의 주장과 일치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연구했던 Rest(1990), Arnold(1993), Jeffery(1993), Catherine(1999), Baek(200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도덕성 발달 단계는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계열을 이루어 각 단계를 누구나 순차적으로 통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지능력의 발달에 따라 도덕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퇴보가

없으며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Kohlberg, 1976)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는 성차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강승호, 고인자, 2003; Kohlberg, 1984; Rest, 1990; Abel, 1993; Arnold, 1993; Catherine, 1999; Baek, 2002)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결과(강성은, 1995; Abdolmohammadi, 1997)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기 발달적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년기에는 인습적 수준의 도덕판단력이 급속히 발달하는데, 10세 이전까지는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판단이 우세하나 10세경부터는 인습적 수준의 단계 3의 조화로운 대인관계지향의 도덕판단이 매우 급격하게 발달하며, 동시에 10세경에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단계 4의 법과 질서지향의 도덕판단이 14세경에는 급격하게 발달해 16세경에 절정을 이룬다(Colby, Kohlberg, Gibbs, & Lieberman, 1983). 이러한 발달과정을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15세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습적 수준의 도덕판단이 매우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 도덕성은 관계맥락과 상황맥락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 및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가상적 사태에서 측정된 일반적 도덕성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므로 관계맥락과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보편타당한 도덕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Gilligan(1982)의 견해를 우리 문화권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상적 사태에서 가상적 대상에게 도덕판단하는 것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생의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으나 배려지향성이 높아진 것은 정의지향성의 사용이 일반적 관계와 상황, 자신과

밀접한 관계와 상황, 모두에서 남녀 차이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동안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고 한 Lamm(1992), Brown 등(1988), Meyers(2001), Walker 등(1987), Skoe와 Diessner(1994)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Gilligan(1982)의 이론을 본 연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려지향성이 높아지며,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지만 배타적으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와 상황에서 구체적 맥락이 있는 딜레마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배려지향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Myers(2001)의 주장처럼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배려지향성 함양을 위한 도덕성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맥락적 도덕성에서 배려지향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Johnston(1988)의 연구와 Lever(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이 친밀성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도덕판단 한다는 Gilligan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전체적으로 두 도덕성을 비교해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성은 높아졌으나 맥락적 도덕성에서 정의지향성은 낮아졌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도덕성에서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낮아졌고 맥락적 도덕성에서 배려지향성은 높아졌다. 이처럼 일반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Gilligan(1982)의 주장에서와 같이 여성의 도덕판단은 맥락이 부족한 딜레마에서는 배려지향적 판단을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가상적 사태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대상 및 상황에서의 도덕판단인 일반적 도덕성에서는 배려지향성이 낮고 정의지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제사태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

계 및 상황에서의 도덕판단인 맥락적 도덕성에서는 구체적 맥락이 제공되었으므로 배려지향적 판단을 하게 되어 정의지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지향성은 부모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친구와 형제관계였고, 교사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의지향적 판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므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도덕판단인 맥락적 도덕성에서도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의지향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는 깊이 배려하게 되고, 먼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는 가벼운 배려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 Noddings(2002)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Lantsberger(1993)는 청년기와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배려지향적 판단에서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으로 배우자, 직장에서 친한 동료,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청소년기의 중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발달단계상 발생한 차이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보다는 친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 지원자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3학년에는 부모가, 7학년 무렵에는 부모와 친구가 동일한 지원자였으나 10학년이 되면서는 친구들이 가장 빈번한 지원자였고(Furman & Buhrmester, 1992), 15세 이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동년배의 영향력보다 크지만 15~16세경에는 동년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였다(Colman, 1978). 그러나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장휘숙, 2000).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 문화이며 관계문화(정갑순, 2002; 장성숙, 2004)여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미국과 한국청소년들의 지각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적대적, 공격적, 비신뢰적,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함을 무관심하지 않음에 표현으로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 문화가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가 자신의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서구의 개별적, 독립적 관계와는 달리 정을 바탕으로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문화와 정서의 독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상진, 2000).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미안함, 측은함, 고마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도 자식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녀의 기쁨과 고통이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되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이 되어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이 형성된다(이장주, 최상진, 2003).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맥락적 도덕성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가장 높은 배려지향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상황맥락에 따른 맥락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성과 배려지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상황과 학교상황에 따라 도덕지향성의 사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딜레마가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Lantsberger(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특정한 공간에 영향을 받아 도덕판단을 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은 사적인 장소인 가정상황과 공적 장소인 학교상황에서 발생한 딜레마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도덕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황맥락보다는 오히려 관계 맥락에 따라서 배려지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중학생들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하게 한다. 즉,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가상적 사태에서 측정되는 일반적 도덕성에서의 도덕판단과는 달리,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실

제적 사태에 있어서 측정되는 맥락적 도덕성에서는 배려지향적 사고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도덕판단에 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딜레마의 경우, 가상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나 딜레마 발생에 대한 상황적 정보가 부족하며, 권리들의 갈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도덕판단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도덕성의 차이는 도덕성 문제를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친밀한 관계 순위는 이들이 연령에 따라 성장해 가는 사회적 및 도덕적 발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도덕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교육에서 배려지향적 도덕성 교육을 중학들에게 성별에 따라 각각 심화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도덕성에서는 성 차이가 없었으나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배려지향적 도덕성 교육에 대하여 남녀 중학생들에게 각각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여학생들에게는 여성들이 배려지향적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 된 판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남학생들에게는 도덕성에는 정의지향적 판단과 배려지향적 판단이 있으며, 두 가지 도덕판단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도덕판단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점과 두 가지 도덕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균형 잡힌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둘째, 도덕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도 함께 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관계맥락에 따라 부모, 친구 및 형제, 교사 순으로 배려지향성이 다르게 나타나 중학생들은 부모에게 가장 배려지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녀의 도덕성에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도덕성 지도를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성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도덕 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은 실제적 사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가상적 사태에서 측정되는 일반적 도덕성에서의 도덕판단과는 달리,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 사태에서 측정되는 맥락적 도덕성에서는 배려지향적 사고를 보였다. 예를 들어, 도덕딜레마를 놓고 나의 부모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혹은 나의 친한 친구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도덕딜레마를 구체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정하여 실제사태와 유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의지향적 도덕성 교육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실시되어도 무관할 것이다. 선행연구결과, Gilligan(1982)이 주장하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Kohlberg(1976)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상적 사태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관계 및 상황에서 판단하는 일반적 도덕성에서는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정의지향적 도덕성 교육은 성별에

대한 차이를 의식할 필요 없이 실시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령에 맞는 도덕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도덕성의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맥락적 도덕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지향적 도덕성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 대상에게 어떻게 도덕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타당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도덕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지향적 도덕성 프로그램은 자신과 밀접한 대상에게 도덕판단 하듯이 상대방과의 관계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도록 도덕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는 Kohlberg(1976)식의 일반적 도덕성에서의 정의지향성을 측정하였고, 일부 Gilligan(1982)식의 맥락적 도덕성에서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Kohlberg(1976)식의 일반적 도덕성과 Gilligan(1982)식의 맥락적 도덕성을 함께 연구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도덕성을 동시에 다룬 연구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배려지향적 도덕성이나 도덕성에서의 맥락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상적 사태에서 일반적 관계에게 도덕판단하는 ‘일반적 도덕성 척도’보다 실제적 사태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서 도덕판단하는 ‘맥락적 도덕성 척도’가 좀 더 적합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적 도덕성 척도’와 ‘맥락적 도덕성 척도’는 표준화 검사가 아니므로 보다 타당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와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

도를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딜레마 상황의 실제성과 구체성이 미흡한 면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덕적 딜레마를 시각매체 혹은 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다면 보다 현실감 있고 수월하게 실제적 사태의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은(1995).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강승호, 고인자(2003). 중·고교생의 도덕 판단 능력과 배려성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12, 1-3.
- 곽경화, 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수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232.
- 교육인적자원부(2007). **도덕. 초등학교 5학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도덕. 중학교 2학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용린·문미희(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 판단력 발달연구 개관: DIT를 사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 43-57.
- 박병기, 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박병춘(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 교육적 접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준성(2000). 배려윤리의 도덕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유병열(2004).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_____(2008).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도덕교육을 향하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미식(2000). 정의와 배려의 윤리에 대한 도덕 교육의 함의.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미식, 최성용(2002).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이옥형(2002). **아동·청년 발달**. 서울: 집문당.
- 이옥형(2006). **청년심리학**. 서울: 집문당.
- 이장주, 최상진(2003). 부자유친 성격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장성숙(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 중심 또는 역할 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15-27.
- 장휘숙(2000).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갑순(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정미연(2000). 한국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 지향적 도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옥분, 광경화(2002). **배려 지향적 도덕성과 정의 지향적 도덕성**. 서울: 집문당.
- 정창우(2008).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추병완(1998). Gilligan의 도덕발달 이론에 대한 재조명. **도덕윤리교육연구**, 9, 41-62.
- _____(2004).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1).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연구보고 RR2001-2.
- 한국교육개발원(2002).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연구보고 RR2002-4-1.
- Abel, T. H. (1993). *Leadership potential and moral development of gifted secondary student: A comparison of suburban and rural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Hatisberg.

- Abdolmohammdi, M. J. (1997). Ethical cognition of business student individually and in group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 1717–1725.
- Arnold, M. L. (1993). *The Place of morality in the adolescent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Baek, H. J. (2002). A comparative study of moral development of Korean and British childre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4). 373–39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rabeck, M. M. (1983). Moral judgement: Theory and research on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an. *Development Review*, 3, 274–291.
- Brown, L., Argyris, D., Attanucci, J., Bardige, B., Gilligan, C., Johnston, K., & Miller, A. (1988). *A guide to reading narratives of moral conflict and choice for self and moral voice*. Unpublished monograph. GEHD Study Center. Harvard University.
- Cartwright, C. C. & Simpson, T. L. (1990). The relationship of moral judgement developmen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f students teachers. *Education*, 111, 130–144.
- Catherine, C. Cantrell.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y type and the level of moral reasoning among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by, A., Kohlberg, L., Gibbs, J., & Lieberman, M. (1983). A longitudinal study

- of moral judge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1), 1-96.
- Collins, R. F. (1992). *Identification of justice and care moral orientations from real-life moral conflicts of critical car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 Coleman, J. C. (1978). Current contradictions in adolescent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11.
- Crandall, C. S., & Tsang, J. (1999). Newsworthy moral dilemma: Justice, caring, and gender. *Sex Roles*, 40(314), 187-206.
- Diamonti, N. L. (1993).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moral reasoning about rule break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Donenberg, G. R. & Hoffman., L. W. (1988). Gender differences in moral development. *Sex Role*, 18, 701-717.
- Durdle, B. M.(1991). *Care-based moral reasoning and empathy in university men and wom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cadia University, Wolfville Nova Scotia.
- Ford, A., & Lowery, C. R.(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77-783.
- Fried, J.(2000). Maintaining high ethical standards. In M. J. Barr, M. K. Desler., & Associates(Eds.). *The handbook of student affairs administration*, 410-424, San Francisco : Jossey-Bass.
- Friedman, W. J., Robinson, A. B., & Friedman, B. L.(1987). Sex differences in

- moral judge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an's Quarterly*, 11, 37-46.
- Furman, W., & Buhrmester, D.(1992),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ergen, K. J.(2001). From mind to relationship: The emerging challenge. *Education Canada*, 41, 8-11.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1997.
- Gilligan, C., & Attanucci, J.(1988). Two moral Orientation: Gender differences and simil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Gilligan, C.(1993). Adolescent development, In A Garrod(Ed.). *Approaches to moral developmen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 (1995). Hearing the difference : Theorizing connection. *Hypatia spr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0(2), 120-127.
- _____ (1997). Remembering Larr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2), 125-140.
- Good, J. L. & Cartwright, C.(1998).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among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2, 270-276.
- Haviv, S., & Leman, P. J.(2002). *Moral decision-making in real life*. Department of Psychology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 Hight, D. L.(2004). *Context, moral orientation, and self-esteem: impacting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Holstein, C.(1976).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males. *Child Development*. 47, 51-61.
- Jeffery, C.(1993). Eth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students, non-accounting business students, and liberal arts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8, 886-896.
- Johnstone, D. K.(1988). Adolescents' solutions to dilemmas in fables: two moral orientation- two problem solving strategies. Gilligan, C. & Ward, J., & Taylor, J., & Bardige B. (Eds.) *Mapping the moral doma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9-71.
- Juujarvi, S.(2003). The ethic of care and its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among practical nursing. *Social Psychological Studied, University of Helsinky*, 8, 1-4.
- Killen, M.(1990). Children's evaluations of morality in the context of peer, teacher-child, and familial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 395-410.
- Kohlberg, L.(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moral order, Pt.1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 6, 11-33.
- _____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 approach to Socialization. Goslin(Ed.), *The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 _____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francisco: Harper and Row.
- Kohlberg, L., Levine, C., & Hewer, A.(1983). *Moral stage: A current*

- formulation and response to cr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francisco: Harper and Row.
- Lamm, L. C.(1992). *Children as problem solvers: Voices of care and justice in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Claremont.
- Lantsberger, T. J.(1993). *Factors in the decision to use a justice or a care orientation in moral reas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 Lavell, J. L.(2001).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age with moral reasoning orientation. care and justice, in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yoming University, Laramie.
- Lefton, L. A.(2000).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Allyn & Bacon publishing (7th ed.).
- Lever, J.(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children play. *Social Problems*, 23, 478-487.
- Lyons, N.(1983). Two perspectives: On self, morality and relationship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 25-146.
- Mahlstedt, C. T.(1994). *Justice vs care: A relationship between moral orientation, gender, affiliation, autonomy, dominance and empathy among psychologists under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Meyers, C. S.(2001). *Care-based moral reasoning of early adolescents: its*

- relations with sex differences, feminine gender role identity, and teacher-perceived coope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Noddings, N.(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 Chicago Press. 추병완 , 박병춘 , 황인표 역. 서울: 다른우리.
- Piaget, J.(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ratt, M. W., & Golding, G., & Hunter, W. J.(1984). Does morality have a gender? Sex, sex role and moral judgement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span. *Merill-Parlmer Quarterly*, 30, 321-340.
- Pratt, S. B.(2001). *Moral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engaged in community service learning: A justice-care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ern College, Boston.
-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 _____ (1990).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o-Kohlbergian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09-714.
- Rothbart, M. K., Hanley, D., & Albert, M.(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Sex roles*,15, 645-653.
- Schiller, D. C.(1991). *The effect of additional context on the usage of moral orientation in the measurement of moral reasoning: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 Angeles.

- Schunk, D. H.(2004). *Learning theori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4th Ed, Prentice-Hall. 노석준, 소효정, 오정은, 유병민, 이동훈, 장정아 역. 교육적 관점에서 본 학습이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6.
- Shira H. & Leman, P. J. (2002). *Moral decision-making in real life: factor affecting moral orientation and behaviour justific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 Skoe, E. A., Eisenberg, N., & Cumberland, A.(2002). The role of reported emotion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moral dilemm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962-973.
- Skoe, E. E.(1995). *Ethic of care, justice, identity, and sex role patterns in men and woman*. Acadia University, Wolfville Nova Scotia.
- Skoe, E. E., & Diessner, R.(1994). Ethic of care, justice, identity, and gender: An extension and replic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0, 272-289.
- Thomas, R. M.(1997). *Moral development theories: Secular and religious*. Westport: Greenwood Press.
- Tronto, J.(1987). Beyond gender difference: To a theory of care. *Signs*, 4, 644-662.
- Walker, L. J. de Vries, B., & Trevethan, S. B.(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alker, L. J.(1994). Walker, L. J., Sex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1677-1691.
- Wark, G . R., & Krebs, D. L.(1996). Gender and dilemma differences in real-life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20-230.

Yacker, N. & Weinberg, S. L.(1990). Care and justice: A scale for its
asse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55, 18-27.

ABSTRACT

A Study of the Contextual Moral Orien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Yee, Hyun Jou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ontextual effect of the contextual morality measured in real situations as well as of the general morality measured in hypothetical situations by applying the contextual theory of Gilligan which is in early stage of study in our country to Korea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 short, this study tries to verify concretely whether the general morality and the contextual morality come out differentl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or they come out differently based on the contexts.

The ques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How does the general mora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come about?
 - 1-1.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the general morality based on age and gender?
 - 1-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the general morality based on context?

- 1-2-1.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the general morality based on the relational context?
- 1-2-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the general morality based on the situational context?
- 2. How does the contextual morality develop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me about?
 - 2-1.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contextual morality based on age and gender?
 - 2-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the contextual morality based on context?
 - 2-2-1.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contextual morality based on relational context?
 - 2-2-2.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justice-orientation and the care-orientation of contextual morality based on the situational context?

A total of 628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7th-9th grad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the 'general moral orientation measure' and the 'contextual moral orientation measure' which were developed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wo-way ANOVA, three-way ANOVA,

four-way ANOVA and Duncan's follow-up verificati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more justice orientation and less care orientation with age in the general moral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justice-oriented moral judgment develops in hypothetical situations owing to the cognitive development based on age without any regard to gender difference.

Second, the care orientation increased and the justice orientation decreased with age in the contextual mora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care-orientation was higher than the justice-orientation in both boys and girls in the contextual morality an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justice-orientation, whereas girls showed higher care-orientation than boys in contextual morality. This doesn't imply that care-oriented morality is evident only in girls, even though it can be found more in girls than boys. Nevertheless, the fact that girls show more care-orientation may explain well that this area of morality is more closely to the morality of women.

The care-orientation morality based on relational context was found most in the context related to their parents followed by friends, siblings, and teachers respectively. Therefore we can see the most care-orientation for parents and the least care -orientation for teachers in contextual mor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re-orien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ppeared high in the contextual morality and that girls showed greater levels of care-orientation than boys.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lies in proving

the contextual morality in the real situations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nd especially in proving care-orientation depending on the relational context.

부 록 1.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사라'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v표 하시오.

유럽의 어떤 나라에 '사라'라는 아이가 살고 있다. '사라'는 나와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다. 나는 '사라'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사라'는 요즘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기 1> '사라'는 친한 친구와 수학여행 갈 때, 짝이 되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가는 날,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앉아 갔다. 사라는 매우 속상했다.

<보기 1-1> '사라'는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이해하다 :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

답 안 지

사라가 친구의 마음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아주 잘 이해했다면					v
보통 이상 잘 이해했다면				v	
보통 정도 이해했다면			v		
약간은 이해했다면		v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v				

<보기 1-2> ‘사라’는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공정하게 판단하다 : 누가,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함)

답 안 지

사라가 친구의 행동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아주 공정하게 판단했다면					v
보통이상 공정하게 이해했다면				v	
보통으로 공정하게 이해했다면			v		
약간은 공정하게 이해했다면		v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면	v				

부 록 1.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유럽의 어떤 나라에 ‘사라’라는 아이가 살고 있다. ‘사라’는 나와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다. 나는 ‘사라’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사라’는 요즘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만 골라 ‘일반적 도덕지향성 척도’ 답안지에 v표 하시오.

<문제 1> 얼마 전, 사라네 어머니가 집 앞 골목을 지나다 지갑을 주우셨다. 그러나 사라네 부모님은 지갑의 주인을 찾지 않으신다.

- 1-1. ‘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 1-2. ‘사라’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2> 사라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학교에서 핸드폰 주웠다. 그러나 주인을 찾지 않고 있다.

- 2-1. ‘사라’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 2-2. ‘사라’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3> 얼마 전, 사라의 담임선생님은 운동장에서 지갑을 주우셨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지갑의 주인을 찾지 않으신다.

- 3-1.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 3-2.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4> 사라의 친구는 며칠 전, 운동장에서 전자수첩을 주웠다. 그러나 주인을 찾지 않고 있다.

4-1. '사라'는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4-2. '사라'는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5> 사라의 옷을 사러가기로 약속한 날, 사라네 부모님(아빠 또는 엄마)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5-1. '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5-2. '사라'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6> 사라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사라가 아끼는 필통을 망가뜨렸다. 용돈을 받으면 사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6-1. '사라'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6-2. '사라'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7> 오늘은 반 학생들과 영화 DVD를 보기로 담임선생님과 약속한 날이다. 오늘 아침, 사라의 담임선생님은 학교에 사정이 생겼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신다.

7-1.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7-2.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8> 사라가 갑자기 사정이 생긴 친구와 청소당번을 바꾸고 먼저 청소해 주었다. 그러나 사라가 청소 하는 날, 사라의 친구는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8-1. '사라'는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8-2. '사라'는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9> 사라네 부모님이 사라의 이메일 내용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신다.

9-1. '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9-2. '사라'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0> 사라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다 쓰고 나서, 사라를 위해 썼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10-1. '사라'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0-2. '사라'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1> 사라네 반 담임선생님은 등교하자마자 핸드폰을 수거해서 학교 할 때 돌려주신다. 그런데 사라네 담임선생님은 사라의 문자 메시지를 몰래 보신다.

11-1.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1-2.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2> 사라의 친구는 학교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만지다 망가뜨렸다. 그러나 친구는 담임선생님께 사라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다.

12-1. '사라'는 사라의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2-2. '사라'는 사라의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3> 사라의 부모님은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를 종종 어기신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3-1. '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3-2. '사라'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4> 사라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길거리에 과자봉지나 아이스크림 껍질 등을 자주 버린다. 휴지통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4-1. '사라'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4-2. '사라'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5> 사라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문제 풀 시간을 주신다며 종종 자습을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15-1.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5-2.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6> 사라의 친구는 종종 수돗가에서 물을 쓰고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 사라의 친구는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6-1. '사라'는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6-2. '사라'는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7> 사라네 부모님은 자가용으로 직장에 출근하신다. 우리 동네에 부모님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 버스로 출근하지만 부모님은 자가용을 태워주지 않으신다.

17-1. '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7-2. '사라'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8> 사라의 형제(오빠나 언니 또는 동생)는 교실 사물함에 우산을 두고 다닌다. 하교할 때 갑자기 비가 오면 혼자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간다.

18-1. '사라'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8-2. '사라'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9> 사라는 어제 열이 심하게 나서 밤새 앓다가 담임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라는 벌을 받았다.

19-1.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9-2. '사라'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20> 미술시간에 물감을 가져오지 못한 사라는 그녀의 친구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수업시간이 많이 지난 후 빌려주어 결국 사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다.

20-1. '사라'는 친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20-2. '사라'는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부 록 2.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다음은 나와 가까운 친구, 우애가 좋은 나의 형제자매, 우리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열이 높으신 우리 반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만 골라 ‘맥락적 도덕지향성 척도’ 답안지에 v표 하시오.

<문제 1> 부모님과 함께 골목을 지나다가 길에 떨어진 수첩과 지갑을 주웠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지갑의 주인을 찾지 않으신다.

1-1.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2.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2> 나는 선물로 받은 좋은 샤프펜슬을 잃어버렸다. 나의 형제(오빠나 언니 또는 동생)가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2-1. ‘나’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2-2. ‘나’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3>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교 앞을 지나다가 수첩과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지갑의 주인을 찾지 않으신다.

3-1. ‘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3-2. ‘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4> 나의 친한 친구 ()는 며칠 전, 운동장에서 최신 핸드폰을 주었다. 그러나 ()는 주인을 찾지 않고 있다.

4-1. '나'는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4-2. '나'는 ()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5> 오늘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가기로 한 날이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아빠 또는 엄마)께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심부름을 시키셨다.

5-1.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5-2.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6> 나는 내 형제(오빠나 언니 또는 동생)와 함께 엄마 생신선물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생신 전날 형제가 돈이 없다고 하여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6-1. '나'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6-2. '나'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7> 오늘은 우리 반 학생들이 영화 DVD를 보기로 담임선생님과 약속한 날이다. 오늘 아침,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사정이 생겼다고 하며 다음에 보자고 하셨다.

7-1. '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7-2. '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8> 나는 친한 친구 ()와 함께 스승의 날 선물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가 스승의 날 전날에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8-1. '나'는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8-2. '나'는 ()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9> 나의 부모님이 내 일기장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신다.

9-1.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9-2.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0> 매일 부모님이 먼저 출근하시고 나는 형제(오빠나 언니 또는 동생)와 함께 등교한다. 형제의 준비가 늦어 종종 지각을 하지만 형제는 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10-1. '나'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0-2. '나'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1> 담임선생님은 내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다. 선생님께서 내 이메일 내용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11-1. '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1-2. '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2> 매일 아침 친한 친구 ()와 함께 등교를 한다. 아침 등교시간에 친구의 준비 시간이 길어 가끔 지각을 하지만 친구는 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12-1. '나'는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2-2. '나'는 ()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3> 나는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친척집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탄다. 부모님은 동생을 무릎에 앉히면 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의 버스표는 사지 않으셨다.

13-1.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3-2.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4> 나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길거리에 과자봉지나 아이스크림 껍질 등을 자주 버린다. 휴지통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4-1. '나'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4-2. '나'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5> 현장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를 탔다.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수가 많아 정원이 초과되었으므로 경찰차가 보이면 몇몇 학생은 고개를 숙이라고 하셨다.

15-1. '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5-2. '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6> 친한 친구 ()는 종종 수돗가에서 물을 쓰고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 ()는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6-1. '나'는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6-2. '나'는 ()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7> 나의 부모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17-1.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7-2.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8> 나의 형제(언니나 오빠 또는 동생)는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항상 챙겨간다. 그러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18-1. '나'는 형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8-2. '나'는 형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19> 나는 어제 열이 심하게 나서 밤새 앓다가 담임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국 벌을 받았다.

19-1. '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19-2. '나'는 담임선생님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 20> 나는 미술시간에 물감을 가져오지 못해 나의 친한 친구 ()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수업시간이 많이 지난 후 빌려주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다.

20-1. '나'는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20-2. '나'는 ()의 행동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